

상담자의 개입적절성 및 긍정적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작용하는 방식: 소수사례에 대한 시계열분석방법의 적용

권 회 경[†]
고려대학교

장 재 홍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의 목적은 시계열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긍정적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작용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계열분석의 다중전이함수잡음모형을 구하고 교차상관을 산출하였다.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긍정적 태도는 입력변인(선행변인)이었으며, 내담자 저항이 출력변인(후행변인)이었다. 연구대상은 두 개의 성공 및 실패사례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lag 1($r=-.313$)과 lag 2($r=-.401$)에서 저항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상담자의 개입적절성은 lag 6($r=-.314$)에서 저항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B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lag 0($r=-.357$), lag 1($r=-.311$), lag 2($r=-.304$), lag 3($r=-.314$)에서 저항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상담자 개입적절성은 lag 3($r=-.401$)에서 저항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상담자 개입적절성보다 내담자 저항을 더 빠른 시간간격에서, 더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작용방식은 성공 및 실패사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개입 적절성, 상담자 태도, 저항, 시계열분석

권회경은 고려대학교 성폭력상담소, 장재홍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권 회 경,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성폭력상담소,
전화 : 02-3290-1701 E-mail heepsy@korea.ac.kr

상담의 목적과는 위배되는 내담자의 행동이나 태도들을 ‘저항’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특정 이론(가령, 정신분석)에 근거한 치료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심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치료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자신의 접근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저항을 만나게 되며, 치료적 진전을 위해서는 내담자 저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많은 연구결과들(권희경, 2000; 조성호, 1997; Graff & Luborsky, 1977; Luborsky, Bashrach, Graff, Pulver, & Christoph, 1979; Streaan, 1985)은 내담자의 저항수준이 상담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치료가 성공적이라면 내담자 저항이 감소되어야 하고, 만일 상담자가 저항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치료의 실패로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내담자 저항의 해결에 대해 각 이론적 접근들은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자 개입 전략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신 역동적 입장에서는 저항의 해결을 위해 저항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내담자 저항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공감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필수적이라 하였다(Brenner, 1976; Fine, 1982; Greenson, 1967; Streaan, 1985). 그리고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치료자의 때 이른 해석이나 치료적 조건을 창출하지 못하는 등 개입전략의 실패로 저항이 유발된다고 하면서, 저항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상담자는 공감적, 수용적, 일치적 태도들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Hartley & Strupp, 1976; Rogers, 1957; Truax & Carkhuff, 1967). 인지 행동적 입장에서는 치료적 기법의 오류나 치료자의 관계형성 노력의 부족으로 저항이 증가되거나 유발된다고 하면서, 저항이 계속될 경우 치료자의 자기검토가 필요

하다고 권고하였다(Goldfried, 1982).

이러한 치료문헌들을 토대로 많은 연구자들은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기법간의 관계성을 경험적으로 밝히려 하였는데, 특히 정신분석을 지향하는 학파의 연구자들이 열성적으로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의 해석기법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결과들은 상담자의 해석 이후 저항이 증가하였다(Garduk & Haggard, 1972; Speisman, 1957),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Shuller, Cris-Christoph, & Connolly, 1991), 해석 이후 저항이 감소하였다(Mahalik, 1994)는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렇듯 해석과 저항의 관련성에 대해 비일관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은 해석의 적시성(timing), 혹은 해석의 정확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 저항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치료자가 얼마나 해석기법을 많이 사용했는가 하는 ‘양’적 요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했는가 하는 ‘질’적 요인도 중요한 것이다.

이에 이후 연구자들은 치료자 기법의 ‘질’을 고려하여 해석의 정확성 혹은 정신역동적 기법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 개입의 정확성 혹은 적절성은 저항 감소 또는 긍정적 상담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장재홍, 권희경, 2002; 장재홍, 안창일, 1999; Cris-Christoph, Cooper, & Luborsky, 1988; Kivlighan, Patton, & Multon, 1996; Silbershatz, Fretter, & Curtis, 1986; Patton, Kivlighan, & Multon, 1997).

여기서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correctness)이란 상담자 개입이 내담자의 사례 공식화(case formulation)와 합치하는 정도, 또는 관련되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는데(Weiss, Sampson, & Mount Zion Psychotherapy Research Group, 1986), 일반적인

로 사례 공식화에는 내담자 문제에 대한 발생론적 원인, 반복적 갈등요소, 이로 인한 내담자 생활에서의 부적응 결과,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상담계획 및 예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저항에 미치는 상담자 요인으로 상담자 태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변인이다. 각 치료접근의 문헌들에서 상담자 태도가 내담자 저항감소에 중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이들간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별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각 학파에 따라 무엇을 치료요인으로 보는가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역동적 입장에서는 상담자 태도보다는 해석과 같은 상담자 기법에 더 중요성을 두어 상담자 태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지 않았고, 상담자 태도를 중요시했던 Rogers 학파는 저항 개념을 무시하여 상담자 태도와 상담성과간의 관계만을 제한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권희경(1999)이 상담자 태도척도를 제작하여 작업동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상담자 태도들은 작업동맹의 유대감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강의적, 판단적, 불안정적 태도와 같은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들은 유대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온정적, 수용적, 존중적 태도와 같은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들은 유대감 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 권희경(2001)은 시계열적 방법을 사용하여 성공 실패사례에서의 상담자 태도와 저항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성공사례에서는 내담자의 저항 이후에도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였으나, 실패사례에서는 내담자의 저항 이후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내담자 저항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여부가 이후의 저항 증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상담자 태도는 상담자 기법이 효과적이기 위해 매우 필요한 요인이다. Frieswyk, Allen과 Colson(1986)은 “상담자 태도는 상담자 기법의 효율성에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Strupp(1981)도 “모든 치료자 기법들은 인간관계의 틀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치료자의 기법과 내담자-치료자 관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자 태도와 상담자 개입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권희경과 안창일(2000)은 상담의 지속과 성과가 상담자 개입기법과 상담자 태도와 관련됨을 밝혔다. 그들은 지속사례의 상담자들은 탈락사례의 상담자들 보다 내담자의 저항을 부각하고 명료화하는 개입을 더 빈번히 하였으며, 저항을 부각하는 시점에서 상담자 태도도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내담자의 저항이 높아진 시점에서 상담자는 저항을 부각하여 직면시켜야 하며, 그 개입시 상담자의 태도는 긍정적이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 연구의 확장된 연구로 장재홍과 권희경(2002)은 10사례를 토대로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내담자 저항 및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는 다양한 내담자 저항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담자 저항변량과 상담성과변량이 더 많이 설명되었다. 예를 들어, 상담자 개입적절성은 내담자의 ‘문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 변량 중 13.8%를 설명하였으며, 상담자 태도들 중 존중적 태도를 추가할 경우 13%의 변량이 누가적으로 더 설명되었다. 또한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회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상담자 개입적절성은 회기에서 측정된 상담효과(내담자의 호소문제의 감소)변량의 19.4%를 설명하

였으며, 상담자 태도들 중 강의판단적 태도를 추가할 경우 35.1%의 변량이 누가적으로 더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문헌들의 언급과 일관되게 상담자 태도 및 상담자 개입적절성이 내담자의 저항 및 상담성가에 다 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들은 동시점에서 변인들간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중다회귀분석 방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예에서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의 존중적 태도는 ‘문제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내담자의 ‘문제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여 상담자 개입의 질과 상담자 태도가 증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들은 추후 연구과제로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는 방식의 연구가 수행되기를 권고하였다. 둘째, 다수 사례에 대한 평균치를 사용하는 연구는 상담실제에서 나타나는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의 독특성을 드러낼 수 없다. 셋째, 동시점에서 변인들간의 관계를 본다는 것은 상담이 지닌 시계열적 관점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는 동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저항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상담자 요인이 내담자의 특정한 변화에 선행요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과적인 설명이 가능한 시계열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자 기법과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작용하는 방식과 같은 탐색적 연구는 다수사례의 평균치 차이검증 보다 소수사례에서 나타나는 상담자 기법과 태도의 영향력을 면밀히 살펴서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요인들 중 개입적절성과 상담태도가 상담과정의 하나인 저항수준의 변화에 시간차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것이 상담성과와 어떻게 관련성을 지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소수사례에 대한 시계열분석의 교차상관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소수 사례에 대한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 방법이란 개별사례를 분석단위로 하여 각 사례마다 시계열적으로 나타나는 변인들간의 상호작용 특성과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방법이다. Kivlighan, Patton과 Multon(1996)은 “특정 치료자 행동이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은 특정 내담자의 행동이 치료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은 개인내 수준(intrasubject level)에서 분석되는 시계열분석으로 대답될 수 있다”고 하였다.

Wampold와 Kim(1989)은 단일사례분석을 통하여 한 사례 내에서 일어나는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은 일정한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각 상호작용의 특징은 상담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Jones, Ghannam, Nigg과 Dyer(1993)는 한 우울증환자에 대한 장기심리치료과정을 시계열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치료자의 비판단적인 수용성 및 중립적인 태도와 전이해석이 우울증 감소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Patton, Kivlighan과 Multon(1997)은 시계열분석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 상담자의 정신역동적 전략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내담자의 저항수준이 낮아지고 작업동맹이

증가하였으며, 내담자 저항의 증가 이후 상담자의 저항에 대한 정신역동적 전략이 증가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권희경(2001)도 시계열분석의 교차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상담자 태도와 저항의 상호작용 현상을 검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소수사례에 대한 시계열분석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상담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는 내담자 저항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 2.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성공/실패사례에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내담자와 상담자

연구대상은 2쌍의 상담자-내담자였다. A사례 내담자는 20대 초반의 여자대학생으로 의기소침

하고 말더듬증 및 대인회피의 문제로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상담자는 30대 후반의 상담 전문가로, 상담경력은 13년이며 정신역동적 상담과 인간중심적 상담을 절충한 상담접근을 하였다. B사례 내담자는 20대 중반의 내담자로 대인관계, 특히 남성들과의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상담자는 30대 중반의 상담전문가로, 상담경력은 10년이며 정신역동적 접근과 인간중심적 상담을 절충한 상담접근을 하였다.

두 내담자는 모두 낮은 자존감 및 불안과 우울 등의 신경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상담전 문제 심각도 수준은 비슷하였으나, 상담의 효과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A사례 내담자와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초기의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반면, B사례는 상담의 진전이 늦고, 상담종결시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문제의 개선이 거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두 사례는 모두 14회기에 종결되었으며, 각 사례의 문제심각도와 상담효과는 표 1과 같다.

평정 척도

상담자 개입적절성 평정척도

본 연구에서 상담자 개입적절성 평정을 위해

표 1. 사례별 문제심각도 및 상담효과 측정치

	GSI ^a	문제 영역별 심각도 ^b		자존감 ^c	상담효과 ^d		
		사전/사후	사전/사후		회기		
					3	8	13
A 사례	55/47	16/10	22/26	5	7	8	
B 사례	56/54	18/16	22/24	2	3	2	

주. a. SCL-90(김광일 등, 1984)의 전체 심각도 지수 b. 문제영역별심각도 질문지(금명자, 1994)
c. 자존감 척도(Rosenberg, 1965) d. 상담효과 질문지(Battle 등, 1965)

Curtis, Silberschatz, Sampson, Weiss와 Rosenberg(1988)의 개입의 계획 조화성척도(the plan compatibility scale of intervention)가 사용되었다. 상담자의 개입 적절성은 치료자의 개입이 계획공식화의 내용을 얼마나 잘 언급하고 있는가를 평정하는 것으로, ① 치료자가 언급한 내용이 내담자 사례공식화의 중심적 요소인가 혹은 주변적 요소인가 ② 구성요소들의 연결 측면에서 단순히 목표만을 포함하고 있는가 혹은 방해물이나 통찰을 목표와 관련짓고 있는가를 평정한다. 이 척도의 범위는 0(반계획적인 것으로 치료를 매우 방해하는 개입반응)에서 +6점(매우 계획적으로 치료에 매우 도움되는 개입반응)의 Likert식 7점 척도로 표현된다. A사례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93, 평정자간 동의율 T값은 .89였으며, B사례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82, 평정자간 동의율 T값은 .66이었다.

내담자 저항 척도

권희경과 안창일(2000)이 개발한 내담자 저항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구성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소통의 회피 및 소극성, ② 모호한 의사소통, ③ 감정 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 ④ 문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 ⑤ 상담 방식 및 상담자에 대한 저항이다. 요인분석결과, '의사소통의 회피 및 소극성, 상담 방식 및 상담자에 대한 저항'이 한 요인으로 묶였으며, '모호한 의사소통, 감정 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 및 문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다른 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에 권희경(2000)은 전자를 직접적 저항으로, 후자를 간접적 저항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0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되는데, 저항값이 높을수록 그 문항의 저항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저항평정 척도의 5개 문항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r=.92 \sim r=.81$ 의 범위로 꽤 높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권희경, 안창일, 2000).

상담자 태도척도

상담자 태도척도는 권희경(1999)에 의해서 구성된 6개 문항의 평정척도이다. 이 척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부정적인 태도에는 강의 판단적 태도, 불안정한 태도, 비몰입적 태도가 포함되며, 긍정적 태도에는 공감적 태도, 수용 지지적 태도, 존중적 태도가 포함된다. 그녀의 연구에서 평정자간 신뢰도는 $r=.76 \sim r=.92$ 이다. 요인 분석 결과, '비판-존중 요인'과 '정서적 공유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척도는 저항 척도와 마찬가지로 평정자에 의해서 녹음테이프와 완전어록을 이용하여 평정된다. 각 문항은 0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된다. 0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은 '약간 그렇다', 2점은 '보통이다', 3점은 '꽤 그렇다', 4점은 '상당히 그렇다'로 명시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한 태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평정절차

개입적절성의 평정

연구자가 제작한 계획 조화성 평정 안내지침을 토대로 평정자들은 평정훈련을 받았다. 평정자들은 상담전문가 3인이었으며, 훈련기간동안 약 20여 시간의 평정훈련을 받았다. 조화성 평정의 준거는 평정자들의 평정 평균이 중앙값 이상이었던 계획 공식화의 목표, 방해물, 통찰 문항들이었다. 이러한 상담자 개입적절성이 평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내담자에 대한 사례공식화가 작성되어야 한다. 지면상 다 언급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는 장재홍과 안창일(1999)을 참

고하기 바란다.

상담자 태도 및 내담자 저항의 평정

상담자 태도와 내담자 저항의 평정은 개입적절성의 평정자와 다른 평정자들이다. 상담자 태도와 저항 척도의 평정자들은 3명으로, 이들은 상담전문가 2인과 상담심리사 1인이었다. 이들은 15시간의 일정한 평정훈련을 마쳤다. 평정자들은 완전어록의 내용을 읽으면서 동시에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평정하였는데, 서로 상의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1개 단락에 대하여 5개 저항의 문항과 6개 태도 문항을 모두 평정한 뒤, 그 다음 단락을 평정하였다.

평정 자료

두 사례 모두 총 14회 진행된 상담 회기 가운데, 상담의 초기, 중기, 후기의 3, 8, 13회기가 표집되었다. 1개 회기는 10개 단락(5분 단위의 평정단위)으로 나뉘어져, 1개 사례 당 30개 단락, 총 60개 단락을 평정하였다. 각 회기의 단락들에 대해 상담자 개입적절성, 상담자 태도 및 내담자 저항 수준이 평정되었다.

분석방법

단계 1 :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 및 내담자 저항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회기내 단락별로 각 변인들을 그래프상에서 표현하였다. 그리고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동시점에서 내담자 저항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 2 :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시계열적으로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태도를 입력변인으로 내담자 저항을 출력변인으로 하는 다중전이함수잡음모형(multiple transfer function noise model)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식을 토대로 교차상관(CCF; Cross Correlation Function)을 구하였다. 교차상관은 A시점에서의 저항과 A-1 혹은 A-2, A-n 시점의 개입적절성 및 태도와의 상관을 얻는 것이다.

다중전이함수잡음모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입력변인 및 출력변인들이 자기상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높은 자기상관(ACF; Auto-Correlation Function)을 지니면(계열적으로 얻어진 자료가 상호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함) 실제보다 높은 교차상관계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몇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각 개별적인 시간 계열들이 비정상성 경향성(nonstationary trend)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탐색은 저항, 태도 및 개입적절성 변인들의 자기 상관을 구하고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는(plotting)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기서 ‘비정상성’이라 함은 각 시점에서 얻어진 자료가 독립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시간의 효과 및 다른 오차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상화’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자기상관을 제거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각 변인들(계열들)이 유의미한 자기상관을 지닌다면, 이는 그 자료가 ‘비정상화’(nonstationery) 상태이므로, 각 변인들의 값을 변환함으로써 정상화 상태가 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시계열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중전이함수잡음모형식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통계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으며, 시계열분석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박성희, 1996; 박유성, 김기환, 2002).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시계열분석의 전이함수의 모형식 도출과정에서 얻어진 일련의 교차상관들을 분석한다. 교차상관분석은 변환된 각 계열들이 다양한 lag(다양한 시간간격)에서 교차되어 상관 지워지고, 유의미한 lag 관계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유의미한 lag 관계가 확인되면, 선행(leading) 변인들은 후행(lagging) 변인들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만약 유일한 교차 상관이 lag 0에서만 있다면, 관계들의 인과적 방향은 가정할 수 없다(Kivlighan, Multon, & Patton, 1996).

본 연구의 자료에서 저항 변인과 태도 및 개입적절성 변인들은 유의미한 자기상관을 지녔으므로, 저항 계열과 개입적절성 및 긍정태도 계열의 자기 상관을 적절히 제거하여 각 계열들을 정상화 상태로 변환한 뒤, 다중전이함수 잡음모형식을 구하고, 교차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담자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는 적절한 모형식을 구할 수 있었지만, 부정적 태도는 유의한 모형식이 산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과에서는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 개입적절성, 내담자 저항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용한 통계패키지는 SAS 프로그램이다.

결 과

A 사례

A 사례의 상담자 개입적절성, 긍정적 태도 및 내담자 저항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¹⁾.

1) 표 2에서 제시된 저항값, 긍정적 태도값, 개입적절성값은 1개 회기내의 10개 단락의 측정값을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로 내담자들이나 상담자들이 단

표 2. A 사례의 상담자 개입적절성, 긍정태도, 내담자 저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담자 개입적절성	상담자 긍정태도	내담자 저항
3회기	4.83(0.9)	3.40(2.18)	5.60(2.64)
8회기	4.22(1.08)	3.10(2.29)	3.67(2.32)
13회기	4.80(0.89)	5.70(2.00)	3.10(2.32)
전체	4.62(0.97)	4.06(2.40)	4.12(2.58)

주. ()는 표준편차, 각 회기별 n=10

상담자 개입적절성은 평균 4.62였으며, 각 회기에서 개입적절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다. 상담자의 긍정태도는 전체평균 4.06으로 3, 8회기에서보다 마지막 13회기에서 더 높게 유지되고 있다.

내담자 저항은 전체 평균값은 4.12로, 상담의 초기인 3회기에는 5.60으로 높았으나 좀 더 진행된 8, 13회기에서는 초기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상담자 개입적절성 및 긍정적 태도, 그리고 내담자 저항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각 회기단락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추이를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A 사례의 저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추

락에 대하여 반응했던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각 측정값들이 단락별로 편차를 갖게 되고 평균으로의 회귀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각 측정치 수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점수범위에 대한 설명을 하던 다음과 같다.

- 저항값: 9점이상(매우 높은 저항), 5점이상-9점이하(중간수준의 저항), 2점이상-5점이하(약한 저항).
- 상담자태도값: 8점이상(매우 긍정적 태도), 4점이상-8점이하(중간수준), 1점이상-4점이하(약한수준).
- 개입적절성: 5점이상(매우 개입적절함), 3점이상-5점이하(어느정도 개입적절함), 2점이상-3점이하(중성반응), 2점이하(적절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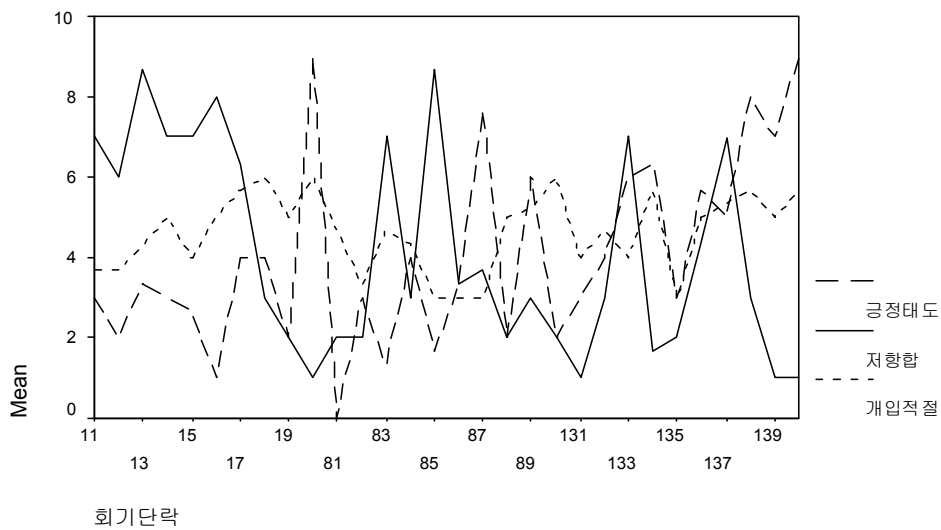


그림 1. A 사례

세를 보이며, 상담자의 개입적절성과 상담자의 태도는 증가 또는 유지되는 추이를 나타낸다.

A 사례에서 나타난 상담자 개입적절성 및 긍정적 태도와 내담자 저항간의 관계를 동시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서 제시하였다.

동시점에서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상담자 개입적절성은 저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 또한 내담자 저항과 다소의 정적상관 경향성($p=.06$)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따라서 이 상관분석의 결과만 본다면, 상담자의 개입적절성과 긍정적 태도는 내담자의 저항과 무관한 것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상담자의 특정한 개입반응은 동시점에서, 즉각적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가지고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계열분석의 다중전이함수잡음모형을 구하고 교차상관(cross correlation function)을 산출하였다.

표 4는 교차상관분석 결과표이며, 식 1은 A 사례의 저항값에 대한 다중전이함수모형식이다. 구체적으로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내담자의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 lag와 2 lag에서 긍정적 태도와 저항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313, p < .05, r = -.401, p < .05$). 이것은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의 증가는 1 단락부터 내담자 저항감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2 단락 이후의 내담자 저항감소에 영향을 미치다가 3

표 3. A사례의 상담자 개입적절성, 긍정태도, 내담자 저항의 상관표

	저항	개입적절성	긍정태도
저항	1.00		
개입적절성	-.257	1.00	
긍정태도	-.350	.318	1.00

표 4. A 사례의 상담자 개입적절성, 상담자 태도와 내담자저항의 교차상관표

Lag	선행변인: 긍정태도, 개입적절성. 후행변인: 저항									
	0	1	2	3	4	5	6	7	8	
긍정태도	-0.200	-0.313*	-0.401*	-0.003	0.070	0.299	0.098	0.057	0.141	
개입적절성	-0.002	-0.139	0.054	0.040	0.054	0.068	-0.314*	0.179	0.118	

식 1. A 사례의 다중전이함수모형식

$$\text{저항}_{t} = 6.9426 + [-0.66760B^6] \text{개입적절}_{t} + [(-0.2850-0.376B^1)B] \text{긍정태도}_{t} + [1/(1+0.59892 B^5 +0.44257 B^6)] a_t$$

해석 : 현재의 저항에 6시차전의 개입적절성이 음의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현재의 저항에 1시차전, 2시차전까지의 긍정태도가 음의 영향을 미치면서 그 이후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음.

단락에서 그 영향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2 단락 이후는 10분이 경과된 뒤를 말하는 것으로,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출현한지 5분 이후부터 시작하여 10분까지 영향을 미치다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담자의 개입적절성이 저항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6 lag에서 개입적절성과 저항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14, p < .05$). 이것은 상담자의 개입적절성은 6 단락 이후 내담자 저항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6개 단락 이후는 30분이 경과된 뒤를 말하는 것으로, 상담자의 개입적절성이 나타난 지 30분 이후에 저항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A 사례를 요약하면, 첫째, 동시점에서 상담자 개입적절성 및 긍정적 태도와 내담자 저항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시계열분석에서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가지고 상담자의 두 변인이 내담자 저항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상담자의 개입적절성에 비하여 더욱 짧은 시간간격에서,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B 사례

B 사례의 상담자 개입적절성, 긍정적 태도 및 내담자 저항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측정값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각 회기단락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추이를 그림 2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표 5와 그림 2를 살펴보면, 상담자 개입적절성은 3회기에서 3.97로 다소 높은 개입적절성 수준을 보였으나 8회기에 이르러 2.80(3점 이하수준은 상담자의 개입반응이 내담자 사례공식화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고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으로 뚝 떨어졌으며, 13회기에서 3.28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적절한 치료적 개입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상담자의 긍정태도는 3, 8, 13회기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에 대하여 내담자 저항은 상담의 초기인 3 회기에는 2.70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8

표 5. B 사례의 상담자 개입적절성, 긍정태도, 내담자 저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담자 개입적절성	상담자 긍정태도	내담자 저항
3회기	3.97(0.69)	3.97(1.37)	2.70(1.99)
8회기	2.73(0.75)	2.80(1.05)	2.63(1.14)
13회기	3.13(1.01)	1.80(1.35)	6.46(1.42)
전체	3.28(0.96)	2.86(1.52)	3.93(2.36)

주. ()는 표준편차, 각 회기별 n=10

회기에서 5.60으로 높아졌고, 13회기에서 6.46으로 극적인 상승을 보였다.

다음은 B 사례에서 나타난 상담자 개입적절성 및 긍정적 태도와 내담자 저항간의 관계를 동시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에서 제시하였다.

동시점에서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내담자 저항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r = -.448, p < .05$). 그리고

표 6. B 사례의 상담자 개입적절성, 긍정태도, 내담자 저항의 상관표

	저항	개입적절성	긍정태도
저항	1.00		
개입적절성	-.059	1.00	
긍정태도	-.448*	.429*	1.00

* $p < .05$

개입적절성과 저항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시계열차원에서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긍정적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교차상관분석 결과표이며, 식 2는 B 사례의 다중전이함수모형식이다.

구체적으로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내담자의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동시점(lag 0)에서 그리고 lag 1, lag 2, lag 3에서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와 내담자 저항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 = -.377, p < .05$; $r = -.301, p < .05$; $r =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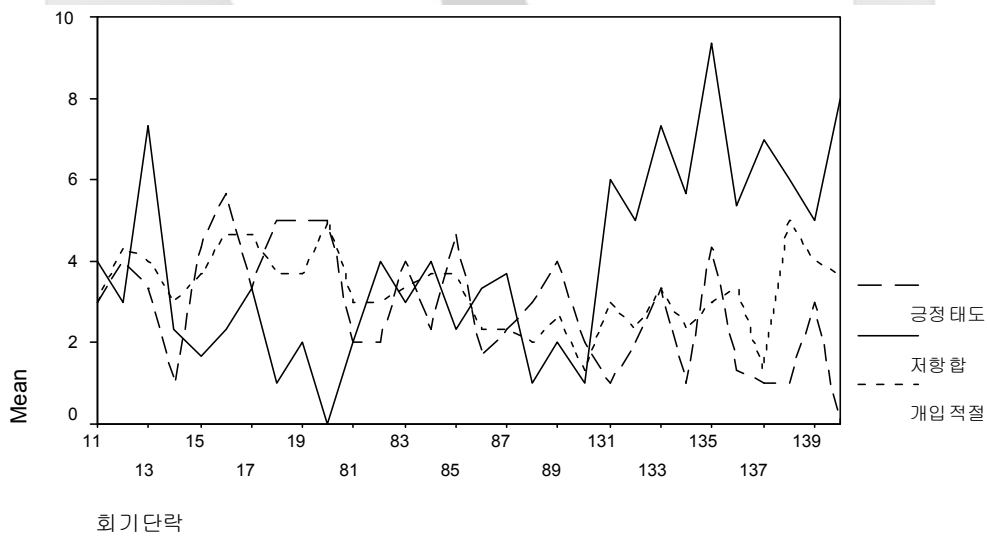


그림 2. B 사례

표 7. B 사례의 상담자 개입적절성, 상담자 태도와 내담자저항의 교차상관표

Lag	선행변인: 긍정태도, 개입적절성. 후행변인: 저항									
	0	1	2	3	4	5	6	7	8	
긍정태도	-0.357*	-0.301*	-0.311*	-0.304*	-0.178	-0.122	0.049	-0.025	-0.045	
개입적절	-0.013	-0.006	0.020	-0.400*	-0.210	-0.267	-0.014	-0.006	-0.152	

식 2. B사례의 다중전이함수모형식

$$\text{저항합}_t = 7.2321 + [(-0.92574 - 1.05890B_1 - 1.22268B_2 - 1.55063B_3) / (1 + 1.03665B)] \times B_3 \\ \text{개입적절}_t + [(-0.36760 - 0.30959B_1)B] \text{ 긍정태도}_t + [1 / (1 - 0.84084 B_1)] a_t$$

해석 : 현재의 저항에 3시차전의 개입적절성이 음의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로 영향력이 사라졌고, 현재의 저항에 0시차, 1시차전, 2시차전, 3시차전의 긍정태도가 음의 영향을 미치면서 그 이후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음.

$p < .05$; $r = -.304$, $p < .05$). 이것은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동시에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1단락, 2 단락, 3단락 시점의 내담자 저항감소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동시점에서, 그리고 5분, 10분, 15분 시점의 저항감소에 영향을 미치다가 15분이 지나면서 효과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상담자의 개입적절성이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3 lag에서 개입적절성과 저항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00$, $p < .05$). 이것은 상담자의 특정한 개입적절성 반응은 3 단락 시점에서야 내담자 저항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을 말한다. 즉 상담자의 개입적절성 반응이 나타난 지 15분이 되는 시점에서 저항의 감소를 이끌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B 사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점에서는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와 내담자 저항간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나, 시계열분석에서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가지고 상

담자 태도와 개입적절성이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사례 A에서와 유사하게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상담자의 개입적절성에 비하여 더욱 짧은 시간간격에서,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성공과 실패 두 사례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와 개입적절성은 두 사례 모두에서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연구에 적용되었던 시계열분석은 시간계열로 나타나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와 양상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두 사례 모두에서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개입적절성에 비해 더 빠른 시간간격에서,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긍정적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작용하는 방식은 성공 및 실패사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의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공과 실패사례 두 쌍의 상담자-내담자를 대상으로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와 그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사례에서 나타난 상담자 개입적절성 및 긍정태도와 내담자 저항값의 변화추이는 상담자 해석의 정확성 또는 전반적 개입적절성이 높을수록 상담성도가 좋고 저항은 줄어든다는 선행 연구결과(장재홍, 안창일, 1999; 장재홍, 권희경 2002; Cris-Christoph, Cooper, & Luborsky, 1988; Patton, Kivlighan, & Multon, 1997)와 일관되며, 역시 상담자의 태도가 공감적, 수용적이며 긍정적일수록 상담에서의 저항이 적고 상담성도가 좋아진다는 선행연구들(권희경, 1999, 2000; Windholz & Silberschatz, 1988)과 일관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항의 극복을 위해 치료자가 일차적으로 내담자 저항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공감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며(Brenner, 1976; Fine, 1982; Greenson, 1967; Streaan, 1985), 치료자의 부적절한 개입이나 잘못된 치료적 절차는 저항을 증진시킨다는 주장(Basch, 1982)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둘째, 연구에 적용되었던 시계열분석은 시계열 자료로 표현되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해 주며 동시점에서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심도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어 A 사례의 경우 동시점에서는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긍정적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하였으나, 시계열분석에서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lag 1, lag

2 시점에서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상담자 개입적절성 또한 lag 6 시점에서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와 개입적절성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태도는 개입적절성에 비해 더 빠른 시간간격에서,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B 사례에서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lag 0, lag 1, lag 2, lag 3,에서 연속적으로 저항에 영향을 주었으나, 상담자의 개입적절성은 lag 3에서만 저항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개입적절성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저항의 감소를 일으켰음을 의미하며, 또한 특정 시점에서 상담자가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행동은 저항감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것이다.

이 결과들은 내담자의 저항감소와 상담성과는 상담자 개입적절성에 의해서 보다 상담자 태도에 의해 더 많이 예언되었다(권희경, 안창일, 2001; 장재홍, 권희경, 2002; Jones, Ghannam, Nigg, & Dyer, 1993)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내담자의 저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우선 상담자가 긍정적 태도를 가질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이상의 논의가 상담자가 적절하게 개입하는 방식이 저항감소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자 개입적절성은 상담자 개입의 질을 평가한 측정치로서, 내담자가 통찰을 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 즉 상담자가 상담초기에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사례공식화를 작성하고, 그 안내를 받아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게 된다면 치료의 성공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들(장재홍, 1999; Weiss, 1988)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자의 적절한 개입은 상담성도에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록 상담자 태도와 같이 연속적으로 저항과 관련성은 갖지 않았지만, 상담자의 적합한 개입반응이 발현된 뒤 15분 혹은 30분 정도의 시간간격 뒤에 저항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매우 발견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넷째,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긍정적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작용하는 방식은 성공 및 실패사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내담자 군에 일반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상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적절하게 개입하고, 내담자에 대해 수용적이면서 공감적인 태도를 취해야하며, 이것은 어떤 내담자에게나 통용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방법은 상담연구에서 진행된 내담자 반응과 상담자 반응간의 동시점의 상관분석연구가 갖는 해석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담 연구의 한 패러다임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소수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 수준에서 상담자 기법과 태도의 영향력을 면밀히 탐색하고, 상담 실제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연구들이 반복되어 그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앞으로 치료적 요인의 기제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할 때 다음의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두 사례의 상담과정에 국한하여 분석된 것으로 여전히 일반화의 문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비슷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상담자 태도와 상담자 개입의 질이 내담자의 저항에 서로 다른 시간간격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과정변인으로 내담자 저항에만 국한하여 연구되어서, 개입적절성이나 상담자

긍정적 태도가 보다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고 체험척도나 상담의 진전 등 다양한 상담과정변인을 고려하여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의 효과를 연구하면 좋겠다. 셋째, 본 연구의 주된 한계로 연구의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 태도, 그리고 내담자 저항을 평정하기 위해서 연구자와 평정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수 밖에 없었다. 추후에는 보다 신뢰로우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측정방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권희경 (1999). 상담자 태도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1(1), 65-84.
- 권희경 (2000). 상담자태도 및 저항에 대한 개입이 저항감소와 상담지속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희경, 안창일 (2001). 성공 및 실패사례에서의 상담자 및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상호작용작용패턴. 한국심리학회 임상, 18(1), 19-36.
- 박유성, 김기환 (2002). SAS/EPS를 이용한 시계열자료분석1. 자유아카데미.
- 박성희 (1996). 상담학연구방법론, 양서원.
- 장재홍 (1998). 해석기법에 대한 이해: 정신역동적 입장에서. 인간이해 제 19호, 12-26,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장재홍 (1999). 계획공식화 방법에 의한 심리치료 과정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재홍, 권희경 (2002).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

- 담자 태도가 과정과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4(3), 487-509
- 조성호 (1997). 내담자 저항과 반발성, 상담자 개입특성 및 작업동맹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Alexander, F. (1961). *The scope of psychoanalysis*. New York: Basic Books.
- Altman, H. A. (1973). Effect of empathy, warmth, genuineness in the initial counseling interview.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2, 225-228.
- Brenner, C. (1976). *Psychoanalytic technique and psychic conflic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ristoph, P. C., Cooper, A., & Luborsky, L. (1988). the accuracy of Therapists' Interpretations and the Outcome o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4), 490-495.
- Curtis, Silberschatz, Sampson, Weiss, & Rosenberg (1988).
- Davanloo, H. (Ed.) (1980). *Basic principles and techniques in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 Spectrum Publications.
- Dunkle, J. H., & Friedlander, M. L. (1996). Contribution of therapist experienc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o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456-460.
- Fine, R. (1982). *The healing of the mind*. New York: The Free Press.
- Frieswyk, S. H., Allen, J. G., Colson, D. B., Coyne, L., Gabbard, G. O., Horwitz, L., & Newsom, G. (1986). Therapeutic alliance: Its place as a process and outcome variable in dynamic psychotherapy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32-38.
- Garduk, E. L., & Haggard, E. A. (1972). Immediate effects on patients of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s. *Psychological Issues*, 7(Monograph 28).
- Goldfried, M. R. (1982). Resistance and clinical behavior therapy. In P. L. Wachtel(Ed.), *Resistance: Psychodynamic and behavioral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Graff, H., & Luborsky, L. (1977). Long-term trends in transference and resistance: A quantitative analytic method applied to four psychoanalyse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5, 471-490.
- Greenson, R. (1967).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rtley, D. E., & Strupp, H. H. (1983). The therapeutic alliance: Its relationship to outcome in brief psychotherapy. In J. Masling, (Ed.), *Empirical studies in analytical theories*(Vol. pp. 1-37). Hillsdale, NJ: Erlbaum.
- Jones, E. E., Wynne, M. F., & Watson, D. D. (1986) Client perception of treatment in crisis intervention and longer term psychotherapies. *Psychotherapy*, 23, 120-130.
- Jones, E. E., Ghannam, J., Nigg, J. T., & Dyer, J. F. P. (1993). A paradigm for Single-Case Research: The Time series study of a Long Term Psychotherapy for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381-394.
- Kivlighan, Jr. D. M., Multon, K. D., & Patton, M. J. (1996). Development of the Missouri Addressing Resistance Scale. *Psychotherapy Research*, 6(4), 291-308.
- Luborsky, L., Bachrach, H., Graff, H., Pulver, S., &

- Christoph, P. (1979). Pre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transfer interpretations: A clinical-quant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7, 391-401.
- Mahalik, J. R. (1994). Development of the client Resistanc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1), 58-68.
- Miller, W., Taylor, C., & West, J. (1980) Focused vs Broad spectrum behavior therapy for problem drink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590-601.
- Orlinsky, D. E., & Howard, K. I.(1986). Process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In S. Garfield & A.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3rd ed., pp. 311-381). New York: Wiley.
- Patterson, G. R., & Forgatch, M. S. (1985). Therapist behavior as a determinant for client noncompliance: A paradox for the behavior modifi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6), 846-851.
- Patton, M. J., Kivlighan, Jr. D. M., & Multon, K. D. (1997). The missouri psychoanalytic counseling research project: Relation of changes in counseling process to client outcom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2), 189-208.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Silberschatz, G., Fretter, P. B., & Curtis, J. T. (1986). How do Interpretations influence the Process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5), 646-652.
- Shuller, R., Crits-Christoph, P., & Connolly, M. B. (1991). The Resistance Scale: Background and Psychometric Properties. *Psychoanalytic Psychology*, 8, 195-211.
- Speisman, J. D. (1957). *The relationship between depth of interpretation and verbal expressions of resistance in psycho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Strean, H. S. (1985). *Resolving resistances in psychotherapy*. New York: Wiley.
- Strupp, H. H. (1973). Toward a reformul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infl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11, 263-327.
- Strupp, H. H. (1981). *Toward the refinement of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Strupp, H. H., & Binder, J. L. (1984). *Historical background: Overview and critique. Psychotherapy in a new key*. New York: Basic Books.
- Tracey, T. J., & Ray, P. B. (1984). Stage of successful time-limite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57-364.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 Weiss, J., Sampson, H., & Mount Zion (1988). Psychotherapy Research Group. *The Psychoanalytic Process*. New York: Guilford Press.
- Windholz, M. J., & Silberschatz, G. (1988) 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A Replication With Adult Out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56-60.

원고접수일 : 2003. 3.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26

게재결정일 : 2003. 6. 7

The Impacts of Appropriateness of Counselor's Intervention and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on the Client's Resistance: Application of Time Series Analysis

Hee-Kyung Kwon

Korea University

Jae-Hong Jang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and the appropriateness of counselor's intervention affect the client's resistance. Two cases of counseling process(case A and B)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counselor' intervention, the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and client's resistance were measured by 3 teams of raters. The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and the appropriateness of counselor's intervention were input variables and the client's resistance was output variable.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in case A, there was a lead-lag relationship in which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decreased client's resistances on lag 1 and lag 2. In addition, there was a lead-lag relationship in which the appropriateness of counselor's interventions decreased client's resistances on lag 6. (b) In case B, there was a lead-lag relationship in which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decreased client's resistances on lag 0, lag 1, lag 2 and lag 3. Also there was a lead-lag relationship in which the appropriateness of counselor's interventions decreased client's resistances on lag 3. It shows that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may decrease more rapidly and continuously client's resistance than the quality of counselor's intervention.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Key Words : *appropriateness of intervention, counselor's attitude, client's resistance, time series analysis, cross correlation function.*